

“19년만에 전성기...인생작 ‘운동퐁’ 덕분”

‘운동 도전한다’는 댓글 가장 기뻐 인기 좋지만 선한 영향력 더 뿌듯 긴 무명생활 전유성 선배님 큰 힘 결혼? ‘운명의 짝’ 기다리고 있죠



개그맨 김민경은 최근 디지털 콘텐츠 ‘오늘부터 운동퐁’에 이어 tvN 예능프로그램 ‘나는 살아있다’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성기라는 시선에 “과분한 칭찬”이라며 수줍게 웃음을 터뜨렸다. 사진제공 | JDB엔터테인먼트

“나이 마흔에 ‘타진다’더니, 정말 사주팔자처럼 됐지 뭐예요.”

개그우먼 김민경은 꽤나 오랫동안 마흔 살이 되기를 기다려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지인들과 찾아간 역술인마다 “나이 앞자리가 4로 바뀌는 순간 잘 된다”는 예언(?)을 내렸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 어릴 가도 되풀이되니, 어느 순간부터인지 “정말 말 타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맞이한 40세. 우연인지 운명인지, 올해 초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의 연출자인 이영식 PD로부터 “운동하는 콘텐츠를 만들자”는 묘한 제안을 받았다. 먹지도, 웃기지도 않는다니 터무니없었지만, “맛있는 녀석들” 팀에 보답하자”는 생각이 출연을 결심했다.

그렇게 ‘인생작’인 디지털 콘텐츠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퐁(운동퐁)’이 탄생했다. 2월 시작해 유튜브로 내놓는 영상마다 100만 조회수를 거뜬히 넘고, ‘열혈 팬’을 자처하는 구독자도 100만명까지 불어났다. 화장품 광고에, “감히 꿈도 못 꾸” 패션잡지 화보까지 줄줄이 찍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기분”이라며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 ‘높아진 수익보다 ‘선한 영향력’ 뿌듯해”

김민경은 ‘운동퐁’으로 맞은 가장 큰 변화가 “‘멋있다’ ‘예쁘다’ ‘건강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통통한 체격과 잘 먹는 캐릭터로만 인식됐던 이전엔 “운동천재”란 별명을 얻을 날이 올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며 웃었다.

“부제가 ‘시켜서 한다!’잖아요. 사실 운동을 싫어해 처음엔 정말 도망가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웨이트 트레이닝, 필라테스, 골프, 야구 등 배우는 종목마다 매력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운동 잘 한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으니 자존감도 쪽쪽 올라갔죠. 몰랐던 ‘나’

를 발견해가는 기분이었어요.” 전 프로골퍼 김미현, 야구스타 양준혁 등 만나는 ‘스승’들마다 “대화 나가자”며 욕심을 낼 만큼 뛰어난 운동신경이 ‘반전’이었다. 내친김에 tvN 예능프로그램 ‘나는 살아있다’로 강인한 이미지

를 더욱 굳히고 있다. 스스로도 “이제 못할 건 없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다양한 활동으로 인기와 수입이 늘어난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요즘 ‘언니·누나를 보고 운동 시작

했어요’라는 시청자 댓글을 정말 많이 받아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는 게 제일 뿌듯하죠. 저도 그런 응원에 희열을 느끼며 위로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 “다시 태어나도 ‘멀리 천천히’ 걸어갈래”

21살 무렵, 대구에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면서는 “지금처럼 잘 될 줄은 가망이 없었”다. 7년 동안 번번이 개그맨 공채 시험에 낙방하면서 ‘이만 꿈만 단념하자’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잡은 건 ‘대선배’ 전유성의 한마디였다.

“돈도, 재능도 없으면서 힘들어 할 때였어요. 전유성 선생님이 하루는 ‘너 정말 개그맨 하고 싶어? 그럼 끈 놓지 말고 붙잡고 있어. 그럼 뭐라도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그 말만 악착같이 믿었어요.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신기하게 하나씩 기회가 오고, 문득 뒤돌아보니 점차 내 길이 만들어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데뷔 이후 8년여 동안 코미디 무대에 전념했다. 비교적 빨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예능프로그램 출연 대신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것”이라며 웃었다.

“마흔 살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저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사이 힘든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한 순간도 헛되지 않았다고 여겨요.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많은 가치와 사람들을 얻어간 거거든요. 아마 더 빨리 걸어왔다면 놓친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김민경에게 이제 한 달여 남은 올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전보다 더 많이 좋아한” 시간이 됐다. 내년 목표도 벌써 정해냈다. “딱 웃애만 같아라!”이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이걸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과욕이란 걸 잘 알아요. 매일 노력해야죠. 부단히 움직일 겁니다. 결혼은 안 하냐고요? 아직 사랑을 믿어요. 언젠간 운명의 짝이 ‘뽕’하고 나타나겠죠. 이왕 오래 기다린 것,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한 번 기다려보려고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주얼리 출신 조민아, 결혼·임신소식 알려



조민아

결그림 주얼리 출신 조민아가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다. 조민아는 15일 SNS를 통해 “저 자신보다 사랑해주고 소중하게 아껴주는, 성실하고 든직한 분을 만나 미래를 함께 하기로 했다”며 “9월 혼인신고를 통해 이미 부부가 됐다”고 올렸다. 또 임신 사실도 밝혔다. 그의 남편은 6살 연상의 피트니스 센터 CEO로 알려졌다. 조민아는 2002년 주얼리에 합류, ‘슈퍼스타’ ‘니가 참 좋아’ 등 히트곡을 냈다. 2006년 탈퇴했다.

샤이니 민호·인피니트 장동우 나란히 전역

그룹 샤이니의 멤버 민호(최민호)와 인피니트의 장동우가 15일 나란히 전역했다. 이들은 작년 4월 각각 해병대와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해왔다. 민호는 지난달 후임들에게 훈련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다고 20일의 전역 전 휴가를 받았었다. 장동우는 휴가를 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대 복귀 없이 제대했다.

조진웅·강말금, 부산영화평론가 연기자상



조진웅

‘사라진 시간’의 조진웅과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강말금이 각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남녀연기자상을 받는다. 또 조진웅 감독의 ‘작은 빛’이 대상, ‘사라진 시간’의 정진영·‘남매의 여름밤’의 윤다빈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나란히 수상한다. 신인 연기자상은 ‘작은 빛’의 박진우·‘유희에게’의 김소혜·‘남매의 여름밤’의 최정운이 각각 품어 안는다. 시상식은 12월11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강말금

즐거워 TV·독특한 TV...TV프로그램 (16일·월)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TV조선 1661-0190 JTBC 02-751-6000 MBN 02-2000-3114 EBS 02-526-2000

Table with TV channels and program schedules for KBS 1, KBS 2, and MBC.

Table with TV channels and program schedules for SBS and EBS 1.

Table with regional channels and program schedules for TJB, CJB, KNN, TBG, UBC, KBC, JTV, and G1.

Table with channel A and other TV channels (JTBC, MBN) and program schedules.